

- ▶ 기 간 : 2024. 10. 28.(월) ~ 11. 1.(금)
- ▶ 방문국가 : 일본 오사카교토 일원
- ▶ 출 장 자 : 15명(의원 6, 공무원9)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024. 10. 28.(월) ~ 11. 1.(금) 4박 5일 /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무안군의회

목 차

I. 출장개요	1
II. 추진경과	3
III. 출장지현황	3
IV. 방문기관 및 현장연수 내용	6
V. 종합의견	30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선진농업국의 정책현장 시찰 및 사례 비교연구, 여성농업인 주요정책과 성공사례 현장 견학으로 향후 우리 군 농업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임.

I 출장 개요

- 출장기간: 2024. 10. 28.(월) ~ 2024. 11. 1.(금) / 4박 5일
- 출장지역: 일본 오사카, 교토 일원
- 출장목적
 - 변화하는 농업환경과 국제농업 흐름 파악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을 위한 정책 현장 비교 연구
 - 여성농업인 지원정책의 성공사례와 시행착오 등 현장 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대안 모색
 - 6차산업 우수사례 현장 견학으로 우리 군 적용사례 발굴
- 출장인원: 15명[의원 6, 공무원 9]

의 원			공무원		
연번	직위(급)	성 명	연번	직위(급)	성 명
1	의 장	이호성	7	의회사무과장	김도완
2	부의장	정은경	8	전문위원	박미옥
3	의회운영기획위원장	임현수	9	전문위원	김봉준
4	행정문화복지위원장	김봉성	10	의회행정팀장	최혜영
5	산업건설위원장	박쌍배	11	정책지원팀장	오석진
6	의 원	임윤택	12	주무관	여준희
			13	주무관	박석철
			14	주무관	김은정
			15	주무관	박 송

● 주요 방문지 및 활동내용

▶ 일본 주요 농업정책 비교시찰

- 오사카부JA농협 임원 면담, 세츠난대학교 농학부 교수 강의

▶ 여성농업인 농업경영 활성화 방안 모색

- 여성농업인 면담, 농림수산성 긴키지방농정국·오사카농업진흥협회 방문 및 면담

▶ 지속가능한 미래농업 방안 모색

- 6차산업 성공사례 현장견학(스기고헤이 농원)

● 주요일정

일 자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인물 (직책포함)
1일차 (10.28, 월)	무안 인천	일본 (오사카)		출 국	
2일차 (10.29, 화)	오사카	오사카	오사카부 JA이즈미노 농업협동조합	JA에서의 여성노동자의 역할, 성과, 직판장 견학 등	타니구치 토시노부 조합장 키타가와 타이치 세츠난대교수
	오사카	오사카	세츠난대학교 농학부 강의 여성농업인 면담	오사카 농업과 여성 농업인의 역할 등	소에지마 쿠미 준교수 여성농업인 2명
3일차 (10.30, 수)	교토	교토	교토부 농림수산성 긴키농정국	관내 농업개발, 최근의 농업정책,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일본 농업 정책	후지와라 미츠히로 센터장
	교토	교토	교토 야마시로 농업협동조합 선과장	관내 농업 관련 시설 시찰 방문, 질의 응답 등	영농부장 쓰지오히토시
4일차 (10.31, 목)	오사카	오사카	일반재단법인 오사카농업진흥협회	일본 오사카농업의 주요 특징과 여성농업인의 육성정책	하시모토타쿠지 교수 다이보고 사무국장
	오사카	오사카	스기고헤이농원	6차 산업화 노하우, 농촌 레스토랑에 관한 강연, 농원 견학, 질의응답	농원주 노지마
5일차 (11.1, 금)	오사카	인천 무안		귀국	

II 추진경과

1 무안군의회 8월 중 의원간담회

- 일 시 : 2023. 8. 5.(월) 10:00 ~ 11:30
- 장 소 : 무안군의회 의장실
- 참 석 자 : 무안군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
- 회의주제 : 공무국외출장계획 초안 검토 및 논의(출장국, 주요 방문지 등)
- 회의결과 : 출장지 및 주요 일정 확정

2 무안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4. 10. 16.(수), 16:00 ~ 16:23
- 장 소 : 무안군청 회의실(3층)
- 참석위원 : 5명(외부위원 5)
- 회의안건
 -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무안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계획 심사의 건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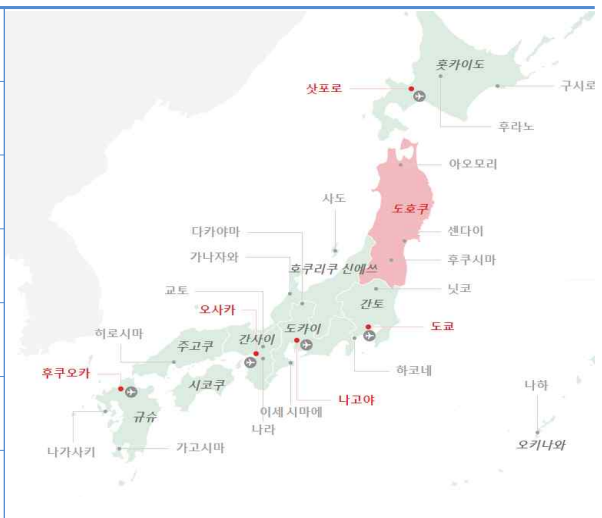
3 공무국외출장 실시 : 2024. 10. 28. [월] ~ 11. 1.[금] / 4박 5일

III 출장지 현황

● 출장국가 기본 현황

일반현황

국명	일본(日本, Japan)
수도	도쿄(東京, Tokyo)
위치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동쪽
면적	337,970km ² (한반도의 약 1.7배), 세계62위
인구	약 1억 2천만명(2023년 기준), 세계12위
행정구역	1都 1道 2府 43縣(총 47개)
종교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정 치

정부 형태	· 내각책임제
주요 인사	· 국가원수: 나루히토 천황 · 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총재
의회구성	· 양원제(참의원 / 중의원) - 임 기: 참의원 6년, 중의원 4년 - 의석수: 713명
주요정당	· 연립여당 : 자민당, 공명당 · 야당 : 입헌민주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경 제

GDP	4조2100억\$ (2023, IMF), 세계3위
1인당 GDP	3만3810\$ (2023, IMF)
교역	총교역량: 1조 5,066억불(2023, JETRO) - 수출액: 7191억\$ - 수입액: 7875억\$
경제성장률	1.9%(2023, IMF)

주요 방문지 현황

가. 오사카[大阪]

- 위 치: 일본 혼슈 중서부 일원
- 지 방: 긴키지방
- 면 적: 1,901.42km²
- 행정구분: 32시 9정 1촌
- 인 구: 약 860만 7000명
- * 일본 전체 3위의 인구 수, 재일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
- 인구밀도: 4,604명/km²
- 산업경제
 - 일본 제2의 도시이자 긴키지방의 중심지
 - 도시의 주산업은 상공업으로 연간 총생산량은 도쿄도에 이어 2위
 - 국제무역항, 국제공항, 철도 등의 교통을 통한 국내외적 물류의 압도적인 강점과 고베-오사카-교토로 연결된 지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
 - 와카야마현, 나라현, 시가현 등을 포함한 중심에 있으며 생산량 면에 있어서도 간사이 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1994년 간사이 국제공항을 개항하였고, 새로운 공공시설, 특히 국제적인 시설과 스포츠시설이 완공되었고 2001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세워져 어뮤즈먼트와 엔터테인먼트의 도시로도 발전하고 있음.



○ 농업분야

- 오사카는 높은 인구밀도와 적은 농지로 인해 소규모 농가 중심의 농업생산으로 효율적으로 농지를 이용하고 있음.
- 도심 근교의 가족농 중심으로 소규모 다품종 생산의 고부가가치 작물에 주력
- 쪽가, 머위, 소송채, 무화과 포도 등 전국 10위권 안에 드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 주요 관광지

-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오사카성, 도톤보리강, 아베노하루카스 전망대

나. 교토(京都)

○ 위 치: 일본 혼슈 중서부 일원

○ 지 방: 긴키지방

○ 면 적: 4,612.2km²

○ 행정구분: 15시 10정 1촌

○ 인 구: 약 252만 1000명

○ 인구밀도: 547명/km²

○ 산업경제

- 1000년 동안 일본의 수도였고 도쿄로 수도가 옮겨진 후에도 일본의 문화 수도로 남아 있어 일본 국내 및 국제 관광의 중심지로 자리잡음.
- 인구나 경제활동에서 부청 소재지인 교토시의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관광업 이외에도 차 재배 농업, 전통 공예품을 만드는 제조업, IT 등 첨단 기술산업도 발전해 있어 오랜 역사문화적 전통과 첨단 기술산업이 공존함.

○ 농업분야

- 교토 중부에서 주로 검은콩이나 팥, 송이버섯 등을 생산하며, 특히 교토지역에서 개량되지 않은 전통적인 종자들로 재배되는 채소를 브랜드로 육성한 ‘쿄야사이’는 교토의 대표 식자재로 엄격한 종자관리와 품질관리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일본의 사케와 녹차의 13%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지시와 그 주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지차(宇治茶)는 일본 3대 차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일본 최대의 수직농장(시설농법)이 교토부에 위치해 있음.

○ 주요 관광지

- 금각사, 은각사, 닌텐도 본사, 교토 후시미 이나리 신사, 니조성

IV

방문 기관 및 현장 연수내용

① 오사카부 JA이즈미노 농업협동조합

가. 기본 정보

JA이즈미노농업협동조합 (제2일)

○ 일반현황

- 위 치 : 오사카부 기시와다시 벳쇼초
- 설립일 : 2009년 4월 1일
- 이즈미 농협조합장 : 타니구치 토시노부
- 조합원 수 : 44,264명
- 임원 / 종업원 수 : 임원 39명, 종업원 350명
- 사업내용 : 농업 지도, 농업정책 활동, 농산물 구매 및 판매, 신용 등



- 점포수 : 본점 1, 영농종합센터 1, 주택담보대출센터 1, 라이스센터 1, 자산관리센터 2, 신용매장 22, 농산물직판장 1, 구매매장 5

○ JA 이즈미의 철학

- “사람이 중요하고 녹지가 중요하다”란 이념으로 인간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녹지를 기반 삼아 지역사회에 연결되어 지역 농업의 진흥을 이끌고 지역주민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

○ 주요 착안점

- 농상공연대사업을 통한 지역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업과 농가의 상생 발전 전략 벤치마킹
 - ※ 농상공연대사업: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ex) 의성군-롯데(마늘, 의성마늘 햄), 화천-오뚜기(토마토, 축제&소스 개발)
- 아이사이랜드(농산물직매소), 직영 레스토랑 등 운영 시스템

나. 일정소화

- 일 시: 2024. 10. 29.(화) 10:00 ~ 13:00
- 장 소
 - JA이즈미노 농업협동조합 회의실
 - 아이사이랜드 농산물 직매소 및 직영 레스토랑 등
- 면 담 자: JA 이즈미노 임원(조합장, 영농담당 상무 외), JA 오사카 중앙회 총무기획부장, 여성조합원 5명 등
- 주요내용: 이즈미 농협의 설립배경 및 현황, 중점 추진사업·지역 사회 연계 사업 등에 설명 청취 및 질의응답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타니구치 토시노부 조합장

▶ JA이즈미노 소개

- JA이즈미노는 오사카 남부에 위치하고, 기시와다시, 이즈미오쓰시, 이즈미시, 다카이시시, 다다오카초의 4시 1정을 구역으로 온난한 기후 풍토의 영향으로 모든 농산물의 재배가 풍작이며, 오사카 중심부와와의 접근성도 용이한 지역으로 특히 벼, 가지, 채소, 복숭아, 무화과, 죽순, 화훼 재배가 성함.
- 2009년 4월 JA이즈미 북서부, JA 오사카 이즈미, JA 기시와다가 합병하여 탄생하였음.
- 2011년 4월 아이사이랜드 오픈 : 농산물직판장, 레스토랑, 가공시설
- 2013년 10월 (주)JA팜 이즈미노 설립 : 생산확대를 위한 육묘사업과 담당자 육성
- 2014년 10월 대형 상업시설 '라라포와 이즈미'에서 지역농산물 직매

▶ 이즈미노 농협과 지역자차단체와 협력사업이나 예산 지원이 있는지?

- 특별한 프로젝트 진행이 아닌 농업에 관한 정보교환 신규 취농 육성, 농산물 및 가공생산물 출하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음.

▶ 쌀생산 정부 매입 현황은?

- 정부비축미는 10%정도이며 약 50%농협, 50%는 소비업체 매입, 전체 생산량의 공급량과 소비량 조절을 위해 생산량 제한을 두고 있으며, 벼 경작 제한 위반 시별도의 패널티(세금)를 부과하고 있음.
- 일본의 농촌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후계자가 없어 벼 경작 제한에도 큰 저항은 없음.
- 쌀가격은 정부에서 조정하고 있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음.

▶ 고령화, 저출산 문제로 인한 농업 관련 외국인 근로자 사용 현황은

- 일본도 농촌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부분보다는 고령자 요양보호 쪽으로 대부분 유입되고 있음.

▶ 고령화로 인한 영농작업 대행서비스 ?

- 세분화된 대행서비스는 없고 모종판매, 수확기 대행, 농기계 임대등의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음.

▶ 청년농업 육성을 위한 농협 지원 정책있는지?

- 청년 창업농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을 위한 융자 및 이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다양한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여성조합원

▶ 여성농업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 여성농업인으로서가 아닌 한 명의 여성으로서 지금은 여성도 농업을 편하게 지을 수 있게 변하고 있음. 농업기계도 남성·여성 모두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큰 어려움은 없음.
-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기본적으로 많은 농가가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시기별로 조금씩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따라서 큰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 여성이 농업하기에는 적합한 구조임. 대규모의 영농인들은 후계자가 있어 가족경영으로 운영됨.

▶ **직판장에 출하하는 작물은 주로 어떤것인지?**

- 꽃꽂이용 꽃, 된장, 흑 콩, 무화과, 야채 등

▶ **젊은 여성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협의 지원 프로그램은?**

- 젊은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 남성·여성 모두 배울 수 있는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JA여성회, 여성대학 등 여성조직의 활동 지원을 위해 커뮤니티지, 홍보지 등을 통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젊은 여성들의 농업으로 유입이 많지는 않아 앞으로도 큰 과제라고 생각함.
- 농산물 직판장인 아이사이랜드에 각 농가에서 소량 생산한 꽃꽂이용 꽃, 된장, 흑콩, 무화과, 각종 야채 등을 판매할 수 있고, 여성농업인 이름으로 출하할 수 있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음.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지역과 연계를 통해 농업의 중요성을 알림]

- 일본 농협은 정부의 농업정책의 대행자로서 지역주민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해주는 지역 종합농협으로 조합원·지역과 함께 식생활과 농업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JA이즈미노는 ‘농업에서 현역으로 즐겁게 일하자’라는 지역 영농 비전을 기치로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비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영농후계자 양성 등 지역 생활 기반을 견고히 하는 동시에 농업소득 증대로 조합원 삶의 질을 개선하고 조합원 맞춤형 대응으로 JA수익사업을 통해 조합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이러한 정세하에서 JA이즈미노는 조합원과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영규모에 따른 방문활동 실시, 생산자재 예약구매 추진, 직판장 활성화를 통한 생산자 소득향상, 지역산 농산물 홍보 및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단한 자기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영농지도 사업으로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의한 농가의 노동력 확보,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에 의한 농작업의 합리화, 취농 설명회 및 실천적인 농업기술 강습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생활지도 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활동이나 환경보전 활동, 여성조직(여성회, 후시미즈)이나 고령자이이들을 대상으로 체험요리교실, 야채레시피 콩쿨 등을 추진하여 음식과 농업의 중요함에 대한 교육을 전개해 나가는 등 지역민과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음.

【농산물직매장과 레스토랑 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 특히 2011년에 오픈한 JA이즈미 아이사이랜드는 농가가 사랑으로 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하며 '농업을 통해 지역사람들이 만나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땅'을 형상화하여 명명한 농산물 직판장임.
- 올해 800만명 입장객을 돌파했으며 판매상품의 80% 이상을 지역산 농산물로 신선하고 '얼굴이 보이는' 안심 농산물 제공을 목표로 함.
- 출하부터 진열, 가격 책정까지 농가가 담당하고, 농협은 직매장 관리와 정산, 고품질 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영농지도, 생산이력기장 지도 및 감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판매된 신선채소류와 제철 식재료로 신메뉴를 개발해 부설 레스토랑에서 뷔페 형식으로 제공하고 카페에서 아이스크림과 커피도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지역홍보관, 수제공방, 체험교류관을 운영하여 먹거리와 농

업에 관한 소중함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지역사회 조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산물 직매장은 소규모로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고령 농가나, 여성농업인에게 새로운 판로처를 제공해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생산·가공·소비자가 일체가 된 지산지소를 실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음.
- 단순한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로컬푸드 매장에 비해 일본은 농산물직매장이 폭넓게 확산되어 지역 농산물을 연계한 다양한 농산가공제품 판매, 농가레스토랑 운영, 각종 이벤트 개최, 도농교류회 개최, 지역 관광과 학교 급식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확장되어 있음.
- 이제 농업도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떻게 판매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음. 다양해지고 있는 농산물유통 변화속에서 단순히 우리지역에서 난 먹거리가 몸에 좋다는 감상적인 접근이 아니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상응하는 다품목 생산을 유도해야 함.
-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가 함께 연대하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판매하고, 농산물 직판장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농상공 연대를 통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지역문화관광과 연계한 효율적인 판매전략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마. 견학 사진



JA이즈미노 개요 설명 청취



여성조합원 면담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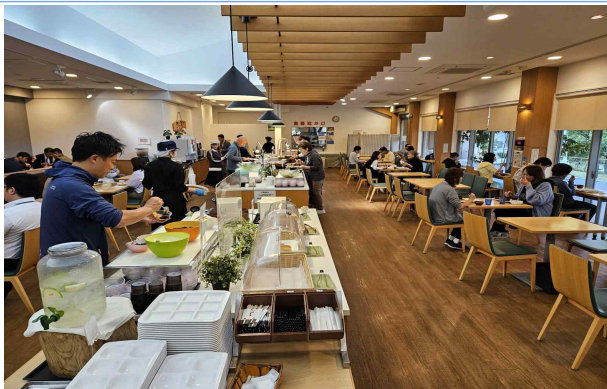
아이사이랜드 직판장 전경



아이사이랜드 직판장 견학



아이사이랜드 레스토랑 전경



아이사이랜드 식사체험



② 세츠난대학교 히라카타캠퍼스 농학부 세미나

가. 기본 정보

세츠난 대학교 농학부 (제2일)

○ 일반현황

- 위 치 :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나가오토게초
- 설립일 : 1975년
- 대학교 총장 : 쿠보 야스유키
- 대학구성: 10개 부 19개 과
- * 법학부, 국제학부, 경제학부, 경영학부, 과학 및 공학부, 약학과학부, 간호학부, 농업학부, 현대 사회학부, 외국학부



- 주요시설 : 종합교육연구소, 정보미디어센터, 도서관, 식물원 등 부대시설
- 정규 교수진 수 : 총 396명(남 286, 여 110)
- 학생현황 : 총 10,494명(학부생 10,294, 대학원생 120)

○ 교육이념

- 인간력과 실천적 능력을 지니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동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
- ※ (농학부) 오사카 부 내에서 유일한 농학부로 도시권 입지를 활용해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의 일련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제공
- ※ (약학부) 약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높아 전국적으로 유명함.

▷ 주요 착안점

- 도농복합도시의 농업과 소규모 농업 발달에 따른 여성농업인 참여와 역할
- 여성농업인 현장경험을 통한 성공사례 및 정책 개선방안 탐구

나. 일정소화

- 일 시: 2024. 10. 29.(화) 15:00 ~ 17:30
- 장 소: 세츠난대학교 농학부 세미나실
- 주요 면담자: 소에지마 쿠미 준교수(副島 久実 准教授) 및 여성 농업인 2인
- 주요내용: 농학부 교수 농업정책 강의, 여성농업인 성공사례 청취 및 질의응답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소에지마 쿠미 교수(세츠난대학교 농학부 식농비지니스학과)

▶ 오사카는 대규모 농업뿐 아니라 도시농업 특성에 따른 소규모 농업이 발달함.

- 1호당 농지면적이 전국 평균 3.14h 대비 오사카는 0.69ha로 소규모 농가가 많음.

- 오사카는 농지가 집단화 되지않고 산재되어 있음. 산재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량다품종 생산이 일본 농업에 적합한 형태임
- 대도시에는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수요가 다양해 그에 맞는 전략화 방법 중 하나임.
- 전국 톱10 안에 오사카 농산물이 있음. 쑥갓, 머위, 소송채, 무화과, 포도는 전국 생산량이 10위안에 들어있는 품목임.
- 오사카의 여성농업위원은 약 13%로 적은 비율에 머물러 있음.(전국 평균 약13%), 농협 여성임원 또한 마찬가지임. 중요한 의사결정에서의 여성 비율이 낮아 개선 필요함.
- 정부주체로 여성농업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중임. 오사카 역시 여성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이며 방안 고민중

▶ **그 외에 일본의 성공적인 여성농업 지원 정책 있다면 ?**

- 2000년도 이전에는 여성생활개선, 공부회를 만들어서 지원했고, 2000년도 이후에는 여성농업인의 기업지원이 확대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한 비즈니스 부분 여성농업 가공판매, 레스토랑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였음.
- 현재는 네트워크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어 여성농업인간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거기서 얻은 아이디어를 활용한 상품 개발이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
- 또한 가족경영 협정제도가 많이 확대되어 젊은 여성농업인 유인을 촉진하였음.

◎ **여성농업인 아가타 노리코**

▶ (주)MALU 대표이사

▶ **6대째 이어지는 전업농가, 중학교 교사와 제과점 경영을 거쳐 현재 농업에 정착**

- 제과점을 운영하면서 본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며 사람들의 호응에 감동을 받고 부모님의 농업을 승계하기위해 귀농선택
- 귀농 이후 농업의 고령화, 후계자 부재, 버려진 휴경지, 도심 속 농업의 어려운 현실 마주하고 당연하게 먹었던 농산물을 얻는 것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것 같은 위기감에 농업에 도전
-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을 좋아해 체험농장을 시작함.
- 사람들을 눈·밭으로 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목표
- 밭에서 요가, 떡치기, 국수 주워먹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한해 600명 이상이 체험 참여. 수확체험만 하는 것이 아닌 동아리를 만들어 재배, 수확 모든과정을 연결하여 체험하는 방식 진행
- 주말농장을 통해 자신이 키우고 싶은 작물을 재배 시행할 계획임
- 인구가 감소하고있는 현실에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됨.
- 논밭을 작물생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재난 피난 장소,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활용도 확대해갈 생각

▶ **체험농장 운영시 정부의 지원은 있어는지 ?**

- 부모님 농지를 이용하여 농지구입비는 들어가지 않았고, 창고 건축이나 농기계 구입시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자금총당 정부 지원은 없었음. 내년에 시행하는 주말농장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임.

▶ **주변에 이런 체험농장이 얼마나 있는지, 체험 참여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지?**

주변의 체험농장은 주로 수확 체험이 많고 처음부터 끝까지 체험하는 것은 거의 없음.

◎ **여성농업인 가와사키 유코**

▶ **나나이로 팜 대표**

- 비농가 출신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다 농업에 관심을 갖고 농업대학에서 공부한 후 타카하시 법인 농원에서 고용농업을 경험.
- 2019년 독립하여 농업을 시작
- 주요작물: 무화과, 공기콩, 당근, 방울토마토, 주키니, 샐러리, 유채꽃, 저농약 벼 등
- 재배방법: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미사용
- 판매처: 소규모 소매점, 도매업자, 레스토랑, 직매장, 개인 고객 등
- 인력: 정규직 1명, 파트타임 1명, 자원봉사자 약 280명(2023년)
- 경영철학: 농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며 농업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 소규모 농가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수용하고, 젊은 농업인 모임을 조성해 매달 지역에서 이벤트를 개최하며 농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며 앞으로 6차산업화(가공품 제조)로의 도전을 계획중임.

▶ **농업자원봉사 지원자는 어떤 경로로 오는 사람들인가?**

- sns를 통해 농원을 접했거나, 농원의 야채 구매 고객, 거래처 관계자. 오사카부의 추천, 농업 희망자 등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지원,

▶ **이벤트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자금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 크라우드 펀딩으로 제작한 피자 가마를 활용하여 자가 재배한 채소나 과일로 피자를 만들기 체험
- 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무화과와 우산 기증: 마르쉐(농부 시장)에서 모은 지원금 및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작지만 강한 도심속 여성농업인의 활약]

- 오사카 농업은 도심속에 산재해 있는 적은 농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선택하여 고수익형 도시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소비지와 생산지가 가까운 점과 도심의 많은 인구는 판로 확보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성평등 의식 확산 등 농업환경 변화로 여성의 농업 참여와 활동은 많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서 여성농업인의 지위가 낮은 것은 사실임. 하지만 가부장제 등에 얽매이지 않고 여성 특유의 감성과 섬세함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sns나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주는 행동력은 지역의 중요한 리더로서 여성이 농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지역농산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자본 창업으로 젊은 여성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이 활발함.
- 여성농업인은 영농과 농외소득 활동을 겸하면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경영주체로서 지역사회활동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여러 제약들을 극복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젊은 여성농업인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발전의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마. 견학 사진



세츠난대 교수 강의



여성농업인브리핑



여성농업인 브리핑



질의응답



세츠난대학 사무실 방문



습지 관람

③ 농림수산성 긴키지방농정국 / 교토

가. 기본 정보

킨키
농정국
(제3일)

○ 일반현황

- 조직명 : 긴키농정국 교토지부
- 위 치 : 교토시 가미교구 니시토인도리시 모노코쥬
- 조 직: 기획조정실, 총무담당관, 소비자안전부, 생산부, 경영 및 비즈니스 지원부, 농촌개발부, 통계학과



- 관할지역: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나라현, 시가현, 와카야마현, 미에현
- 활동목표

· 생명을 지탱하는 음식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미래의 아이들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사명으로 시대의 변화를 내다보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함.

- 주요정책

- 그린푸드시스템 전략: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대처를 알기 쉬운 등급 라벨로 표시하여 소비자가 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음식으로부터 일본을 생각한다 NIPPON FOOD SHIFT’ 시행: 미래 젊은세대를 타깃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모

㉞ 주요 착안점

-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영농지원 및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에 따른 농업정책 방향 및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
-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방안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10. 30.(수) 10:00 ~ 12:00
- 장 소: 킨키사무국 회의실
- 주요 면담자: 사무국장 등 사무국 관계자
- 주요내용: 킨키 사무국의 역할과 주요 정책 및 현황 브리핑 및 질의응답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후지와라 미츠히로 센터장

▶ 일본 농업 개황

- 식생활의 변화로 장기적인 쌀 소비 감소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대규모 자연재해 증가로 농업분야 영향
- 농촌 위기에 대응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1999년 제정된 이후 25년 만에 대폭 개정)
 - 친환경 식량 시스템 구축
 -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의 유지
 - 지역 인구감소를 고려한 농촌 기능의 유지
 -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 킨키지방 농업 개황

- 최근의 농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각 부현에서 다양한 농업을 전개하고 있음
- 킨키지방 농업 구조는 소규모 겸업농이 많음. 반면 시가현, 효고현에서는 논 지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영농 전개
- 교토부에서는 전통야채 생산, 와카야마현, 나라현에서는 과수 생산 번성
- 농업의 다각화 도모 : 농업과 의료, 복지, 먹거리, 스포츠 등 연계

▶ 기후변화에 대응한 킨키농정국의 정책 대응 방향은 ?

- 푸른식료품 시스템 전략(14가지)중 하나인 환경을 배려한 대처 2025년까지 전 농지 1/4 유기농업으로 전환 계획
- 농업인 소비자 모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함께 동참하기 위한 식품라벨 표시 홍보

▶ 농촌 고령화에 대한 방안은 ?

- 고령화로 농촌인력 감소와 농지면적 감소추세로 스마트 농업, 기술발전 위해 노력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과 관리방안은?

- 교토 북부지역에 외국인근로자 고용(캄보디아 인도네시아)
- 기술실습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기술 있으면 5년 더 연장, 영주권 획득까지도 가능 하지만 흔하진 않음.

▶ 가족경영협정제도 도입배경 주요성과는 ?

- 농업에서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이었으나 농업인구 감소로 여성의 역할 중요해짐.

- 가족경영협정제도는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농가내 가족구성원 역할과 책임, 보수와 노동시간 등을 명확히 하여 농가경영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원들 상호간의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 체결한 것임. 처음엔 부모와 자식간의 협정으로 시작해 부부간의 협정으로 확대되었음.
- 농가 내 여성의 농업노동은 물론 농업경영이나 가사, 육아, 노부모 수발 등의 노동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영 의사결정, 지역사회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주요사업이나 정책은 ?**

- 농업여성 프로젝트
- 2013년 민관 연대 프로젝트로 처음 시작
- 여성농업인이 일상생활이나 농업을 하면서 얻은 지혜와 섬세한 감성을 다양한 기업의 기술·노하우·아이디어와 결합 시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창조하고 사회 전체에 널리 발산하기 위해 농림수산성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내외의 다양한 기업·단체와 연계하여 농업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전체에 여성 농업인의 존재감을 높이고, 아울러 젊은 여성 농업인의 증가를 도모함.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농업의 다각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

- 기후위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식량시스템 강조,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농촌진흥 도모, 식량안보 확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식품산업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일본 농업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됨.
- 농업 노동력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농산물 가공, 체험, 관광 민박 등 농업경영을 다각화한 부분에서 여성의 경영결정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이에 따른 농림수산성에 추진하고 있는 ' 농업여자 프로젝트 '는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조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고, 여성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등 개발로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젊은 여성을 농업으로 유인하는 성과를 내고 있음.

- 이러한 여성과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농상공 연계와 의·복·식·농 연계 등 농업의 다각화 모색을 통해 농림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사회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농어촌의 소득 향상 및 고용확보를 위해 47개 모든 도도부현에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인 서포트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며 6차산업화 교육, 경영체 상담 및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도 일본의 6차산업과 동일한 농촌육복합산업육성법을 제정하여 광역단위 6차산업 지원센터 설치와 6차산업화지구 지정으로 민관과 협업해 다양한 농촌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여 참여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된 사업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 우리지역도 추진중인 K푸드융복합산업단지,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을 바탕으로 한 농상공 연계와 농업의 다각화를 통한 브랜딩 추진이 필요함.
- 또한 타 지자체와 차별화 및 캐릭터화를 통한 홍보전략, 철저한 성과분석과 사후관리 방안 마련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마. 견학 사진



브리핑 청취



질의응답



질의응답



기념촬영

4 JA교토야마시로 가지선과장

가. 기본 정보

JA교토
야마시로
선과장
(제3일)

○ 시설개요

- 위치: 교토부 교타나베시 신아카이케9-2
- 준공 : 2016. 3. 30.
- 총사업비: 2억 6293만엔(보조70%)
(개발, 건축, 선과기, 방화설비 포함)
- 대지면적: 4,313㎡
- 건축면적: 912㎡

○ 설비기계

- 선과기 1라인, 포장기 1라인,

○ 작업인원 : 15명

○ 연간 가동량: 846t(1일 7.6t)

○ 출하회원: 75농가

㉞ 주요 착안점

-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이누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나라 낙지 맨손어업유산 프로그램 및 발전 방향 벤치마킹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10. 30(수) 13:00 ~ 14:00

○ 장 소: JA교토

○ 주요 면담자: 박물관장, 재단 관계자, 관리 직원 등

○ 주요내용: 설립 배경, 인력관리·운영체계 등 면담, 시설 탐방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쓰지오히토시 영농부장

▶ 가지선과장 건립 경위

-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대체작물로 가지 선택(타작물 생산 보조금 지원정책)
- 물이 많이 필요한 작물로 이 지역 지하수가 있어 가지 재배 유리
- 고령농업인 증가로 생산력은 떨어지지만 가지 재배 기술은 우수한 장점을 이용해, 농가는 재배만 하고 선별, 판로확보는 농협이 담당
- 가지 생산 농가중 여성과 고령자가 많은데 판매를 농협이 분담하면서 농가 여유시간 확보 할 수 있는 장점
- 6월 ~ 11월까지 수확 농협에서 선별 포장 출하
- 교토지역 가지재배 유리, 오사카 교통 소비지 근접
- 가지절임 등 가공식품으로, 상품성 떨어진 것 가공 모든 작물 판매가능
- 선과장 준공 이후 농가 농업 노동 시간 감소, 여성들 여유시간 확보

▶ 출하경로

- 교토남부 야마시로 지역은 교토 총농업생산량의 40% 차지함
- 교토, 오사카 지역 등 소비지에 근접해 있어 판매 유리함.
- 고품질은 유통업체 등에 출하, 상품성이 떨어진 것은 절임 등 가공공장 출하로 수확농산물 전량 소진

▶ 출하조건

- 조합원만 출하가능, 연작장해를 막기위해 윤작, 휴경 등으로 토양관리
- 300평에 300만엔정도 수입 연작안됨. 3년 휴경 조합원만 출하, 노지생산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지역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상품 개발 필요]

- 고령화와 영세농가로 생산·출하 등 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여성, 고령농업인의 강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작물을 선택하고 농가 조직화로 고용과 소득 창출의 효과를 냄.
- 농가는 농산물 재배만 하고 수확 후 선별, 포장, 규격 출하 등 유통단계를 농협이 담당함으로써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고품질 농산물 공급으로 실질적인 농가소득 발생과 여가 시간 증대로 농가의 만족도가 높음.
- 우리지역도 지역별로 특성화 작물과 특산품을 육성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있는 전략상품 발굴이 미미한 수준임.

- 우리지역 특성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전략작물을 발굴해 규모화·브랜드화를 추진한다면 젊은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을 유인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됨.

마. 견학 사진



가지선과장 전경



브리핑 청취



브리핑 청취



내부 전경



질의응답



기념촬영

5 오사카농업진흥협회

가. 기본 정보

오사카 농업진흥 협회 (제4일)

○ 일반현황

- 조직명 : 일반재단법인 오사카시 농업진흥협회
- 위 치 : 오사카부 조토구 시기노 니시
- 설립일 : 1992년 9월 1일
- 회 장 : 하시모토 타쿠지
- 주요사업



- 농산물 직매소 운영, 아침시장, 시민농원 지원 등 농업을 통한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줌.
-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인 친환경 농산물을 ‘오사카 에코 농산물’로 인증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촉진함
- 농업인 조세 및 법률문제 상담 등 농민을 위한 다양한 자문 활동

㉞ 주요 착안점

- 일본 여성농업인 활동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다변화하는 농업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 모색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10. 31.(목) 10:00 ~ 12:00
- 장 소: 오사카농업진흥협회 회의실
- 주요 면담자: 하시모토 타쿠지 교수, 다이보 사무국장
- 주요내용: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역할과 활성화방안
관련 강의 및 질의응답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하시모토타쿠지 회장(와카야마대학교 명예교수)

▶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위, 역할 변화 (1970년대)

- 가족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에서 여성은 중요한 역할 담당
-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또한 겸업농가가 많아 여성에게 의존하는 농작업 비율이 높음
- 농업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및 농촌사회에서 보조적인 위치에 머물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음

(19780년대~1990년대)

- 고도 경제성장 세계화 진행, 장기 경제불황등 일본 경제의 격동속에서 농가 및 농업 종사자 대폭 감소 및 고령화 진행
-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농업인 역할과 기능이 재평가되기 시작, 보조적인 존재가 아닌 파트너로서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 높아짐

(2000년대 이후)

- 농업 종사자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여성농업인 감소도 가속화
- 1900년대 핵심농업 종사자의 남녀 비율은 거의 절반(52% : 48%) 였으나 최근 남성 60%, 여성40% 변화
- 여성 신규 농업 종사자 또한 급격히 감소(2006년 24,600명→ 2018년 13,400명)

(새로운 농업환경 변화)

- 농업의 6차산업화 추구(농산물 가공 및 유통 주목)
- 환경친화적인 농업(유기농업 등)과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커뮤니티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
- 식품의 안전과 안심, 지역생산→지역소비, 식생활 교육, 학교급식 등 식생활에 대한 관심 증대
- 농협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직매·가공·복지 활동 증대

▶ 정부의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시작

- 1988년 농산어촌 여성의날(3. 10. 제정)
- 1995년 농림수산성 가족경영협정의 보급 촉진에 관한 통지 발행
- 1999년 "남녀 공동참여 사회 기본법" 제정
- 정책의 기본 방향
 - 여성 농업인 확보·육성·지원을 중점으로 부문별 세밀한 대책
 - 남녀 공동참여의 보급과 계몽
 - 법인화·창업 활동 등 6차산업화 지원
 - 여성 경영능력 향상 및 농업인 교육
 - 농작업 환경개선

▶ 여성농업인 농작업 환경 개선사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

- 스마트농업이 대표적이며, 위험한 노동 등 남녀 작업분담
- 가족협정체결로 여성 일 분담. 법인도 규제를 만들어 여성 일하기 편한 환경 조성하고 있음.

▶ 가족농 중심 농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

- 일본은 압도적으로 가족농이 많음. 축산분야는 기업 법인화가 많이 돼있으나, 쌀·야채·과일은 가족농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함,
- 가족농의 생계가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 필요함. 농업소득이 적다보니 많은 여성이 농업외 일을 병행하고 있음.
- 농업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예: 유럽의 직접소득보장 등)

▶ 1990년에 정부주도로 가족경영협정을 본격적으로 시행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체결률이 30% 정도 머물러 있는 이유

- 시행초기 많은 혜택을 주는 인정농업인 제도와 연계 추진하면서 꾸준히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 이후부터는 완만한 증가 추세임. 농업이 다각화되면서 오래된 제도로 인식됨. 그러나 여성의 경영참여와 권익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임은 틀림없음.

◎ 다이보 미유키 사무국장(농민련 오사카 산지직거래 센터 사무국장)

▶ 여성농업인 특징

- 여성농업인은 남성에게 없는 시선으로 생산·판매 가능
- SNS등을 통한 홍보 및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 체험 등을 홍보
- 상품의 포장·디자인 면에서 소비자를 사로잡는 강점
- 환경과 사람을 고려한 재배 방식 추구

▶ 여성농업인으로서 느끼는 어려움

- 트랙터 등 중장비 조작 및 운전
- 남성중심으로 제작된 체형에 맞지

▶ 신규 여성농업인 유입 및 확대를 위한 방안

-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과 배울 수 있는 장소 제공
- 누구나 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농지사용의 용이함.
- 안전한 농작업을 위한 환경 개선
- 안정적인 판로 확보

▶ 농민 운동 전국 연합회(농민련)의 역할은 ?

- 농민 및 농업발전을 목표로 소비자와 농민의 가교 역할
-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안심하고 안전한 식량을 지키자'는 '산지 직거래운동'으로 계약을 통해 쌀, 야채를 소비자에게 전달
- 여성부를 구성하여 매년 한 번 전국대회를 개최해 각 지역의 특산물, 전통요리 등을 가져와 여성농업인 친목 도모

▶ 농민련 전국대회개최 보조금은 있는지 ?

- 각 부의 농민련 운영자금과 개인부담으로 개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은 없음.

▶ 자원봉사는 모집이 잘 되는지 ?

-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있어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지속하는 사람들이 많아 모집에 어려움은 없음.

라. 시사점

[여성의 강점을 이용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여성 농업인은 농사와 집안일, 육아, 부모 봉양 등 과중한 노동과 경영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법적, 직업적으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여성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가족경영협정이나 인정농업자 제도 등을 우리보다 앞서 시행하면서 농업환경의 다변화, 경영의 다각화로 인해 여성의 강점을 이용한 농업관련 부

가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보교류, 네트워크 지원으로 여성 스스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우리나라도 공동경영주 제도, 농어가 도우미지원사업,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등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각종 사업들이 시행중에 있으나 단순 지원에만 집중돼있고,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부족으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는 떨어지는 실정임.
-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은 더 증가 될 것을 전망됨에 따라 여성농업인이 직면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정책 개선이 필요함.
- 활동이 활발한 젊은 여성농업인의 가장 큰 제약은 일과 가사의 양립을 유지하는 것과 전문능력 부족 문제로 여성농업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공동경영주로서 실질적인 지위 보장, 일하기 편한 환경조성, 전문인력 육성 교육, 농외소득 활동 지원, 복지시설(보육시설, 교육기관) 확충 등은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
- 또한 농업에서 활약하는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홍보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려 청년·여성농업인의 농촌유입과 출산률 증가, 마을의 활기로 이어져 농촌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마. 견학 사진



강의 청취



질의응답



브리핑 청취



기념촬영

⑥ 스기고헤이 농원

가. 기본 정보

스기고
헤이
농원
(제4일)

○ 일반현황

- 위 치: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스기토야
- 농 원 주: 노지마(野島)
- 고용인원: 20명
- 농원면적: 약 4ha
- 주요특징
 - 일본 최초의 상업적 유기순환농법 고안



- 일본 최초의 농가레스토랑 운영

- 농장에서 블루베리, 유자, 산복숭아, 딸기나무, 자두, 우엉, 플럼 등 1백여가지 제철작물을 재배해 체험학습과 레스토랑 식재료로 사용
- 피자굽기, 콩 탈곡, 목공, 과일식초 만들기 등 연회비 6만엔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 농업과 관광을 융합한 비즈니스 모델로 농업의 6차산업화에 성공한 대표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주요 착안점

- 농업경영체를 통해 농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6차산업 창안에 따른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방안
- 농업이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치유와 복지를 제공**하는 **소셜팜이나 케어팜과 같은 복지 농업으로의 진화** 가능성 가늠

나. 일정 소화

- 일 시: 2024. 10. 31.(목) 13:00 ~ 15:00
- 장 소: 스기고헤이 농원 내 다목적실
- 주요 면담자: 노지마 농장주
- 주요내용: 농원의 설립 배경과 주요 특징 설명, 농촌 레스토랑, 체험농장 등 6차산업화에 관한 강연 및 질의응답, 농원 견학

다. 관계자 인터뷰 내용

◎ 농원주 노지마씨

- ▶ 농원주 노지마씨는 1971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농가를 이어받았으며, 고도 경제성장기로 농업이 경시되는 풍토에서 생산만 추구하는 농업과는 다른 경영방식을 고민하며 농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농원을 시작함.
- ▶ 대량생산이 아닌 다양한 작물의 소량생산으로 가치있는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레스토랑과 직매장, 체험농장을 운영함.
- ▶ 농장에서 키우는 20여 마리의 당나귀 배설물을 발효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유기순환농법을 실천하며 자연 그대로의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먹고 체험하며 농업의 가치와 매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함.
- ▶ 안정적인 농장 운영을 위해서 체험에 식사(1인 6,000円)를 포함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재배하는 제철 농산물로 밥상을 마련하고 건조·절임 등을 통해 반찬을 제공하고 있음.
- ▶ 노지마씨는 농부에게 농지는 일터이자 삶의 터전으로 “모두가 그곳에 살고 싶어지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농업과 복지기능을 연계하고, 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라. 견학내용 및 시사점

【 농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채움 】

- 스기고헤이농원은 소비자가 인접한 도시근교의 강점을 이용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본 농가레스토랑의 원조이자 6차산업의 성공모델임.
- “스기고헤이“ 농장은 생산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넘어서 농경을 추구함. 농경이란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그것을 먹는 것이란 농장주의 농업에 대한 철학을 통해 그동안 오로지 생산만을 추구하며 경제의 노예가 되어 농업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되는 계기가 됨.

- 또한 정부지원에 의존해 단순 생산·가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을 계승하려는 의식과 농업과 환경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진 차별화된 서비스 창출이 농가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마. 견학 사진



농가레스토랑 입구



농가레스토랑 내부



식사체험



농원 소개 청취



농원 견학



기념촬영

V 종합의견

- 일본과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면서 농업부에서 벼농사 위주의 농업정책과, 집약적이고 영세농 위주의 농업구조, 낮은 식량자급률로 인한 식량안보의 위기 등 많은 부분에서 닮아있음.
- 특히 심각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농업 생산력 저하로 이어져 농업·농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일본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농업현황과 정책 동향을 참고하여 우리 농업·농촌이 헤쳐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연수가 되었음.
- 농촌고령화, 식품소비의 변화, 건강과 안전·안심 지향,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은 이제 단순 생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조와 가공을 가미해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이를 통해 체험, 관광, 문화활동 등으로 연계·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 정책으로 진화되고 있음.
- 일본의 6차산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산지소 직매장은 평일에도 입장 인원을 제한할 만큼 주민의 호응을 얻으며 지역활성화에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의 다양한 생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직화하고 농가 및 공동체는 농산물 판매를 비롯하여 가공, 체험, 관광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6차산업 가치사슬에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부가가치의 지역 내 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대형 유통마트와 차별화를 갖지 못하는 우리지역 로컬푸드 사업의 대안 마련의 참고점이 되었음.
- 6차산업의 여러 가지 정책과 지원으로 양적 성장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6차산업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소비자가 공감하지 못하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과 지역만의 차별성 없는 중복된 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 또한 정부의 자금지원 중심으로만 추진되어 다수사업체가 자생력이 부족해 6차산업을 통한 지역 내 파급효과는 제한적인 실정임.
- 일본의 농업정책 현장을 돌아보며 6차산업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처음부터 농가 소득증대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판매자가 자신이 원하는 가격에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는 점.
- 또한 유통업자나 정부지원에 휘둘리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정성으로 정직하게 농업에 대한 가치를 알리고 지켜나갈 때 자연스럽게 소득창출과 지역활성화로 연결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정책방향 결정에 큰 영감을 주었음.
-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경영참여가 활발할수록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로 농업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동일한 현상으로 일본의 여성농업인 정책은 여성 스스로가 중심이되어

지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 이를 통해 여성과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농·상·공 연계와 의·복·식·농 연계 등 농촌의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소득 창출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농업의 다각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여성농업인의 수요가 높은 농산물가공, 마케팅, 인터넷 상거래 등 여성농업인 특화 교육과 함께 양성평등 교육을 확대하여 여성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양성하고 직업적 만족도를 높여 농촌지역에 활력과 젊은 농업인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농업·농촌은 연계 형태에 따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진 융복합산업공간으로 앞으로는 6차산업화를 넘어 환경·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능 농업으로 확대될 것임. 이번 연수경험을 통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농업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